

김재철의 거짓말 입증할 결정적 물증

J여인과 공동 구매 숨긴 계약서와 신고필증

MBC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김재철과 '의혹의 여인' 무용가 J씨가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하고 관리해온 '경제적, 법률적 한 몸'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김재철 측은 제대로 해명을 하지는커녕 거짓말투성이 회사 특보를 잇따라

발행하며 진실을 덮고 노조를 음해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김재철의 거짓말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공개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원군 광의면 연제리 736 흥반베르디움(아) 602동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이억이천만 원정(W220,000,000)		
계약금	금 일십만원정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영도권은 2010년 9월 10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위 부동산에 과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통기에 협력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 본 계약서에 의하여(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나하면 부동산거래특별조치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10년 9월 10일</div>			
매도인 주 소 사천시 동현안 제(아) 성명 김재철 주민등록번호 5312-... 권 010-...			
매수인 주 소 사천시 동현안 제(아) 성명 김재철 주민등록번호 5312-... 권 010-...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회사 특보)

왼쪽 사진은 사측이 어제(23일) 내놓은 회사 특보에 실린 김재철 소유의 충북 오송 아파트 매매계약서이다. 사측은 이 문서에서 거래 계약 날짜만을 확대해 보여주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매도인의 이름은 지워서 알 수 없도록 했다. 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일까? 이 매도인은 누구일까? 사측은 하루 전인 22일 회사 특보에서 김재철에게 아파트를 판 매도인은 바로 J씨라고 해명했다. 이를 근거로 김재철과 J씨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약신고필증'으로 드러난 추악한 거짓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른쪽 사진은 조합이 입수한 김재철 명의 아파트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한 증명서이다. 사측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날짜와 같은 '2010년 9월 10일'자로 충북 청원군에 제출한 신고필증을 보면, 매매계약 내용과 함께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이 필증에서 확인된 아파트 매도인은 J씨가 아니라 S씨이다.

조합의 현지 취재 결과, 김재철에게 아파트를 판 매도인 S씨는 바로 김재철과 J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난데없이 매매계약서의 매도자에 부동산 중개업자 이름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 역시 현지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다.

김재철은 지난 2009년 오송의 중개업자 S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매물 2개를 구매달라고 요구했다. 그 해 5월 매물이 나타나자 김재철과 J씨는 함께 중개업자를 방문해 해당 아파트 두 채를 모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건설업체는 해당 아파트의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무이자 대출은 한 사람당 한 채씩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김재철과 J씨는 한 채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접수일	2010년 09월 10일	접수번호	0000000000
성명(등인명)	김재철	주민등록번호	531219-100000000
주소	경원군 광의면 연제리 736 흥반베르디움(아) 602동	국적	대한민국
연락처	(이동전화: 010-...)		
성명(등인명)	S씨	주민등록번호	710000-100000000
주소	충청북도 ...	국적	대한민국
연락처	(이동전화: 010-...)		
계약일	2010년 09월 10일	계약금	2010년 09월 10일
종류	보통	분양권 (분양권액: 217,500,000 원)	
소지자/차적/연락	충청북도 청원군 광의면 연제리 736 흥반베르디움(아) 602동 (지번: 8) (연락: 3950002 지번이전) (대지권(또는 공유지분)비율: 3950002분의 81.2912)		
계약당시연락	전화 (81.2912 지번이전), 건물 (84.8873 지번이전)		
평가가격금액	220,000,000 원		
계	220,000,000 원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220,000,000 원		
상대 거래가격(거래)		중도금	0 원
		잔금	0 원
계약조건 및 기한	특이사항 없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교부합니다. 2010년 09월 10일 청원군수			

②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조합 입수)

제3자 명의로 돌려놓기로 결정했는데, 명의를 빌려줄 제3자를 찾지 못하자 분양권을 소개해준 중개업자 S씨의 명의로 분양권을 사게 된 것이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이다.

'공동 구입' 사실 숨기려 '매매계약서' 공개

그로부터 1년여 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중개업자 S씨는 김재철과 J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가져갈 것을 요구했고, 김재철은 다시 J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문제가 끝난 데다 소유권 등기를 할 때가 됐기 때문이었다. 사측이 '김재철이 J씨에게 아파트를 샀다'는 거짓말의 근거로 회사 특보를 통해 공개한 '매매계약서'는 바로 '2010년 9월 10일'에 단순히 명의자만 변경한 이 계약이다. 궁지에 몰려 공개한 '매매계약서'는 단지 아파트를 '공동 구매'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던 셈이다.

하루 만에 꼬리 내린 'J씨에게 구입 주장'

개인의 비리 사실을 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도저히 언론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는지, 사측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22일 특보에서 "지인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은, 어제 특보에서 J씨 얘기를 쫓 빼고 "지인으로부터 매입을 권유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진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도, 내뱉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거짓말들을 늘어놓다가 '거짓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 내일은 또 어떤 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지, '김재철의 입'에서 나오는 사측 특보가 기다려진다. 김재철과 이진숙의 끝없는 거짓말 행진으로 점철되는 회사특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1960년대를 풍미한 어느 소설의 마지막 문장처럼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실상 '한 주머니' 검찰 수사만 남았다

김재철과 무용가 J씨가 '오누이' 행세를 하며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고, 위임장까지 써주며 전세 임대까지 공동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필증', 회사 측이 공개한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 과정에서 김재철이 자필로 쓴 위임장, 그리고 김재철과 J씨의 이름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세 세입자들의 증언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정황을 드러내주고 있다.

금방 들뜬 난 김재철의 뻔뻔한 거짓말

사측은 회사 특보를 통해 '공동 구입'은 없었고, 전세 계약 과정에서 '위임장' 같은 것은 작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금방 들뜬 나고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김재철과 J씨가 '오빠-여동생'으로 부르며 함께 아파트를 사러 다녔고, 즉석에서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도 조정하고 결정했다고 여러 중개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호반 베르디움 602동의 전세계약에서 J씨는 본인과 김재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개업자는 물론 세입자도 '김재철의 위임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꼼꼼한 세입자는 '위임장만 보고 계약할 수 없다.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겠다'고 고집했고, 그 바람에 김재철이 오송으로 내려와 세입자와 대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세입자가 7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된 뒤, 두 번째 전세 계약은 아예 '김재철의 위임장'으로 진행돼 체결까지 됐다. 전세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임대인 김재철 씨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 위임장을 첨부해 ○ ○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차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함"이라고 적혀있다. 이 계약에 쓰인 '김재철의 위임장'

을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J씨였다.

김재철에게 남은 건 검찰 수사 뿐

아파트를 함께 사러 다니고, 명의자를 즉석에서 조율하고, 위임장을 써주며 전세 계약을 대신해주는 김재철과 J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한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 김재철과 J씨를 둘러싼 술판 의혹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게 됐다. 그동안 김재철이 J씨에게 갖은 수법을 동원해 20여억 원을 몰아준 이유가 결국엔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회삿돈 빼돌리기와 다름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명백한 배임이며 김재철 개인의 부정축재이다. 이제 김재철에게 남은 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뿐이다.

MBC 최고참 기자 이우호 국장 파업 동참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에 큰 힘이 보태졌다. 외주제작2부 이우호 국장이 파업 115일째인 어제 조합에 전격 가입하고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국장은 "견디기 힘들어 일손을 놓기로 했다.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하는 말로 파업 참여의 소회를 밝혔다. 이우호 국장은 81년에 입사해 31년간 뉴스는 물론 <시사매거진 2580> 등 보도제작물과 술한 다큐멘타리를 만들어 온 MBC 보도본부의 최고참 기자다. 지난해엔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 <타임>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기도 했다. 이우호 국장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의 파업 동참은 단순히 파업 참가자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을 넘어 김재철의 중대한 비리에 공분하면서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간부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김재철 개인비서 된 이진숙 공범 아니라면 왜 김재철 개인비리 옹호?

'입만 열면 거짓말, 김재철은 물러가라!' 2010년 39일 파업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대표 구호이다. '권력으로부터 MBC를 지키겠다', '김우룡을 고소하겠다' 등 취임부터 입에 침을 튀겨가며, 나아가 입술보습제까지 발라가며 거짓말을 일삼았던 김재철. 대국민 사기극은 기본에 배임,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추잡한 범죄 행각이 드러난 지금, 안타깝게도 '거짓말'과 '자기부정', '유제이탈화법'의 화신인 김재철의 말을 여전히 진실이라 추종하며 변호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MBC 회사 특보'의 책임자인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다.

회사 특보는 개인 비리 덮는 도구?

지난 22일 김재철과 J씨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이 폭로되자 회사특보는 김재철의 범죄 혐의를 벗겨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22일자 회사특보는 '김재철 사장은 2010년 9월 오송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지인 J씨로부터 구입했다'며 물증도 없이 급하게 해명을 나섰다. 하지만 23일자 회사특보에는 J씨 이야기가 자취를 감춘다. 왜 그랬을까? 매매계약서 등 추후 입수한 김재철의 아파트 구입 관련 서류 어디에도 J씨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확인(Fact Checking)'이 중요하며 '등기부등본도 못 읽냐'고 역정을 낸 회사특보와 그 책임자 이진숙 본부장의 입장이 궁극적이다. 관련 서류에 없는 사실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확인(Fact Checking)'을 못한 '함량미달 얼치기'의 행동인가? 아니면 사실(Fact)을 '왜곡' 더 나아가 조작한 '의도적 범죄 은닉'인가?

'Cross Checking' 은 안 하시나요?

김재철의 변명이 사실(Fact)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제3자나 서류로 한 번 더 확인(Cross Checking)했다면 거짓 해명으로 가득찬 22일자 회사특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2일자 회사특보가 없었다면, 모자이크로 점철된 안쓰러운 23일자 회사특보가 나올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사장님 말씀은 무오류의 팩트라고 신봉했기에, 회사특보는 김재철의 거짓말과 함께 끝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회사특보는 '법인가드 부정 사용', 'J씨에 몰아준 특혜', 'J씨 오빠 정실 채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궁색한 처지에 몰린 '김재철 구하기'에 '울인'을 계속하다 이제는 도저히 '회군'이 불가능한 '김재철과 동반 파탄'의 운명까지 이른 것이다.

회사특보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이진숙 본부장은 이젠 정병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고 스스로 체념하는 대신 김재철의 개인비서가 아닌 자연인 이진숙으로 복귀해야 한다. 김재철의 범죄 행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진숙 본부장이 진실과 실상을 모르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이진숙의 회사특보가 김재철의 개인적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마치 신과도 같은 '전지적 시점'을 견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재철의 범행을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해 하루하루 공범의 대열로 다가서면서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지러운 투기 행태가 부른 구입시점 논란

김재철과 무용가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충북 오송은 1997년 정부에 의해 '생명 과학단지'로 지정된 뒤부터 부동산 바람이 불었다. 신행정수도 계획 발표 후인 2004년엔 '투기지구'로까지 지정됐다.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던 오송의 투기 열풍은 오송신도시가 '투기지구'에서 풀려 오송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는 2007년 겨울부터 다시 고개를 든다.

'딱지 전매' 전형적 부동산 투기

나중에 김재철과 J씨가 구입한 아파트들을 지은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시작해 '딱지'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권의 미등기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무렵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하는 건 시세차익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인데 김재철이 회사특보를 통해 공개한 '매매 계약서'에도 미등기 전매를 거처며 세 차례 소유권이 바뀐 흔적이 남아 있다. 김재철과 J씨도 미등기 전매를 시도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해 아파트가 완공된 뒤 정식 등기를 하고 전세를 주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김재철은 2010년 9월 무용가 J씨와 함께 샀지만 부동산업자 S씨의 명의를 빌려 숨겨뒀던 아파트 한 채의 명의를 자신에게 옮기려고 회사특보로 공개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법원에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김재철은 이 아파트 최초의 소유자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렸다.

미등기 전매와 구입시점 논란

등기의 원인인 매매 날짜는 아파트 건설사가 최초의 '딱지' 소유자인 박 모 씨에게 분양권을 판 2007년 12월 28일로 기록됐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라면 매매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의 소유자가 같은 게 대부분이지만, 김재철의 경우 '딱지'를 이용한 여러 차례의 미등기 전매를 거친 거래여서 김재철에 앞서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를 미등기 전매한 사람들의 이름은 등기부 등본에 남지 않았다. 김재철의 아파트 구입 계약서가 2010년에 작성됐지만, J씨와 오송에 함께 나타나 분양권 3장을 산 건 2009년, 등기부 등본의 매매 시점은 2007년으로, 구입 시점이 혼란스러운 것은 김재철의 아파트 구입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한 형태인 '분양권 미등기 전매'의 성격에 있기 때문이다.

정영하 위원장 "김재철 때문에 배석규 가려져 미안"

YTN 노조가 지난 1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어제 남다른 YTN 사옥 앞에서 방송 3사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 집회를 열었다. 언론노조는 집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낙하산 사장 배석규와 불법 사찰 조직과 내통한 YTN 간부들은 즉각 회사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YTN 노조는 "민간인 사찰 문건에서 드러난 배 사장과 정권의 협조관계"를 강하게 규탄하며, 배 사장의 즉각 퇴진과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잡범 김재철 때문에 정치범 배석규가 가려져 매우 미안하다"면서 "MBC 노조가 100일 넘게 파업하며 주목받고 있지만 시작과 본질은 3년 8개월간 해고자가 복직되지 못하는 YTN"이라며 힘을 실었다.

집회에 이어 MBC 조합원들은 서울역과 명동, 시청 등 시내 일대를 돌며 '김재철의 비리사실을 고발한 총파업특보'와 '100일 투쟁 역사를 담은 CD'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거리선전전에 나섰다. 시민들은 "내가 좋아하는 MBC가 어찌다 이렇게 됐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덜고 힘들겠지만 승리를 기대한다"며 5월의 햇살처럼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